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이 시대의 거울

(말라기 1:1-5)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면서 신약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파사에서 유다로 돌아온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후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변혁기의 과거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본 선지자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말 3:1),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이와 같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로 인해 파기된 옛언약과 새언약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서에는 ‘How, 어떻게’라고 하는 회의론적인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1.원망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1:2).

이것은 쓴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어떻게 사랑하였느냐고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2.시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1:6).

당시에 제사장들은 눈먼 것, 절름발이 양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가증된 말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 돈 쓴 것 계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3.평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1:7).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짓된 떡입니다. 도적질 한 것, 악한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얼굴 모습입니다.

4.자기 정당성

“너희가 말로 여호와의 피를 흘리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피를 흘렸나이까 하는도다”(2:17).

우리는 자기정당성을 주장하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꾸 괴롭힙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은 괴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한 편에 달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이 논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약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같은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 할 수 있습니다.

렸던 강도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까지 자기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자기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5.자기 합리화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3:7).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냐고 합니다. 순종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핑계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성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6.자기 방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

이라”(3:8).

사람의 것을 도둑질 했다면 혹 그럴 수 있다고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 것입니다.

7.자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3:13).

이것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깨지지 않고서는 가정이 살 수 없고 교회와 국가가 살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 하는 것은 자기 의며 아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선지자가 지적한 원망, 시비, 평계,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자기의를 고집하는 일은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이 논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약할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같은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번역된 주기도, 사도신경 서울교회가 최초사용 - 송구영신 예배부터 사용키로 -

서울교회 당회 결의로 노회와 총회에 현의되어 만들어진 주기도·사도신경 재번역이 지난 12월3일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문위원들이 우리 교회당에 모여 확정 선포된 주기도·사도신경을 각 교단별로 받기에 앞서 한국교회 중 가장 먼저 서울교회가 사용키로 하였다.

새해의 첫 시작인 이번 송구 영신예배에는 바르게 된 번역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뜻 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하고 우리교단에서 받기

오늘 2005년 찬양대 · 섬김위원 일부 임명

우리교회는 지난 주 순례자에 발표된 일정대로 오늘 예배시간(주일예배, 찬양예배)에 찬양대원 및 2005년 섬김위원 중 일부를 임명 한다.

오늘 임명받는 찬양대원과 섬김위원들은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로 결의하여 지금 널리 입혀지고 있는 개정개역판 성경도 서울교회가 최초로 사용한바 있다.

한편 우리교회는 이번에 새번역된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각 부서에서 암송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주기도와 사도신경 새번역문은 오늘 주보 간지로 배포된다. 스티커로 제작되었으므로 찬송가나 성경책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번 새번역에 대한 관심이 일반사회에서 까지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일간 신문들·주간지·라디오와 TV에 연일 보도된 바 있다.

기도한다.
15일(수)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호산나와 시온 찬양대의 임명이 있고 다음 주일(19일)에는 교회학교 교사와 섬김위원 2차 임명이 있다. 오늘 임명받는 찬양대원과 섬김위원들의 명단은 본지 4면에 게재 되어있다.

장로 가정탐방-운찬오장로 가정편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아무에게나 소중
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
게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구
원한 생명을 맡기신다

여기 20살 때 청년 집사로
부름 받은 운 찬오 장로님!

철저한 유교집안에서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슬
하에서 예수 믿는다고 밥을
끓이고 성경책을 부엌 아궁
이에 불태우는 심한 핍박 가
운데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



안성희 집사는 유아부 찬양
대교사로 봉사하는 충성된
일꾼들이다. 세상에서 예수
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사신
운유하시고 겸손하신 운장
로님! 1999년에 교회의 기
둥 같은 장로님으로 장립하
셨고 교회를 위해 크고 작은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
는 성실한 장로님이시다. 그
동안 식당관리, 새가족부 교
사로 헌신하셨고 2005도에
는 전도위원장과 장년4부

교사로 봉사하시게 된다.

헌당식을 앞두고 교회부흥을 위해 힘껏 뛰시겠다고
웃으시는 얼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
진 행복한 장로님이다.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달
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더 낮고 더 작게 더 느리게 가는 예
수님의 속도는 무력하고 나약하고 실패로 보이지만 그 십
자가의 죽음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하며 그 모습을 닮으
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향기로 온 교회를 잔잔히 예수
로 물들이는 운 장로님, 즐겨 부르시는 찬송은 424장(나의
생명 되신 주)와 늘 암송하시는 성구는 "주의 말씀대로 나
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 119:116)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시겠다고 겸손한 미소로 다짐하시는
장로님 가슴에 환한 빛이 비추인다. 신동기(편집부)

비전2020 운동본부 중보기도요청 -군복무중인 청년들을 위하여-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는 매월 첫
제주일에 서울교회의 젊은이들 중 현재 군에서 복무하
며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월례
중보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에 중보기도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순례자
에 군복무중인 청년들의 명단을 게재하여 기도를 요청
한다.

군복무중인 젊은이들의 안전과 그들이 근무지에서
군과충 준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한
다.

군복무자	보유자	군별	중보기도자
강일선	강진환 집사	육군	이갑진 장로
음원석	음득근 집사	해병대	이갑진 장로
박건아	박정호 집사	해병대	이갑진 장로
노재균	노문환 장로	공익	진 돈 장로
명노상	명인식 성도	육군	진 돈 장로
조종화	조철기 집사	공군	진 돈 장로
김동현	윤영자 권사	육군	유영준 집사
김영수	김재진 목사	공군	유영준 집사
박찬웅	박희서 집사	육군	유영준 집사
강진수	강한중 집사	육군	유근중 집사
김동찬	김성운 집사	육군	유근중 집사
김용정	김재홍 성도	육군	김형배 집사
박승기	박충구 집사	육군	김형배 집사
손윤복	손병석 집사	육군	최임수 집사
정태완	정인주 집사	육군	최임수 집사
송충엽	송재현 집사	공군	이준수 집사
유영광	유근중 집사	육군	이준수 집사
신기조	신도섭 집사	육군	최양진 집사
장지호	장 덕 집사	육군	최양진 집사
조동현	조근환 집사	육군	김영주 집사
허동혁	허상한 집사	육군	김영주 집사
최강현	최양진 집사	육군	정인주 집사
최광혁	최학인 장로	공군	정인주 집사
최명훈	최임수 집사	육군	유관도 집사
김찬기	김태삼 집사	육군	유관도 집사
유병일	유관도 집사	육군	장 덕 집사
유종률	유유명 집사	육군	장 덕 집사
이원우	이인근 집사	육군	김규태 집사
신동빈	신도교 집사	육군	김규태 집사
이한공	최금봉 집사	육군	우상태 집사
이동준	정영옥 집사	해군	우상태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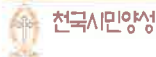
찬양대양성반수료식

-오늘 저녁 찬양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찬양대양성반수료식을
갖는다. 찬양대 양성반은 서울교회 교회학교의 하나로
각 찬양대의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성도는
반드시 찬양대 양성반의 7주 교육을 수료해야 찬양대
원으로 봉사가 가능하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3일(월) 한국로잔 중앙위원, 주기도, 사도신경 5인 위원회를 소집한다. 14일(화)총회 주재위원회, 16일(목)복음 신앙동지회, 17일(금) 한국로잔총회를 소집한다.
- 이사 : 정은순집사,전인상집사(1교구) 대치동1017 현대타운 G동 101호 T. 501-1848
- 우리밀감곡수(5교구 정부군집사 이영희권사)2004년도 Hi Seoul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50개업소에 선정
- 주간식당봉사 : 베드로남선교회(12.12) 바울 남선교회(12.19)
- 금주의 식사 : 김정호 집사가정(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보조



2005년 일꾼에게 듣는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영철집사(스데반회 간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일뿐 아무 자결 없는 저에게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청지기로 쓰임 받게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보면 주저앉고 싶고, 환경을 보면 숨어버리고 싶지만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등에 업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85세 때 해브론 산악지대를 믿음으로 정복한 갈렙을 생각하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황정임 권사(신임 권사회장)

쓸모없고 부족한 여중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분에 넘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 종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건 없이 순종적인 복종을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종이 될 수 있을까 무척 두렵고 떨리기만 할 뿐입니다. 기도와 헌신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여중이기에 믿음의 선배님들과 후배들의 따뜻한 격려와 가차 없는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5년 권사회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즉각적인 복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하셨을 때 전혀 지체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복종은 일시적이고 즉흥적

육신은 연약하나...



김용숙 권사(신임 살롬권사회장)

2005년 살롬 권사회장직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부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롬 권사회는 육신은 비록 연약하나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세계선교를 위

갈렙처럼 성실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신앙을 본받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외쳐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감히 스테반회의 높은 산악지대를 순종의 무릎으로 올라가 주님의 심장으로 변방을 겨안고 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격려하고 연합하여 온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2005년도 헌당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황무함과 쓰라린 어려움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 안수 받은 46명 믿음의 용사들과 더불어 91명 모두 신발이 닳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부르짖으며 서울 교회를 사수하겠습니다.

서울 교회의 천국 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자의 구제의 새 기도를 스테반회의 어깨에 메고 2005년 대장정의 여정을 시작하려 장족의 발걸음을 내 디더 봅니다.

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권사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조금의 지체없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하겠습니다.

또 야베스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임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에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이는 세속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겸손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권사회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조국을 위한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겸손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회 모두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달란트의 크고 작음을 따지기 보다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는 권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종이 2005년 한해 낙망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진심어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서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복병 살롬권사회 회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목사님과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성심껏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 살롬권사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2005년에는 서울교회 새예배당을 주님께 헌당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권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살롬 권사회를 지도하시는 지혜영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더욱 강건하게 우리를 지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05년 신임 임원들과 회원들이 믿음의 일치와 연합의 띠를 띠고 성령님의 인도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기를 원하며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양대 양성반을 마치고서...

양정실 집사(13교구 26다락방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편103:1-5)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등록 후, 서울교회와 함께 한지 이제 첫 돌을 맞으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감사와 찬양으로 한해를 마무리 해봅니다.

일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열린교육 프로그램의 문을 차례차례 지나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고,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항상 좋은 것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 섬기고 있는 부서와 시간이 겹쳐 찬양대 양성반 등록이 미뤄져왔던 터에 올해의 마지막 기회인 7기양성반에 가까스로 동승하여 7주간의 찬양여행을 다녀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찬양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조명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시는 윤영국 목사님, 찬양대의역사, 호흡과 발성법, 음악이론 등 박정선 장로님의 열성적 강의와 탁월한 실기 지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 반주가 필요한 부서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반주자, 겸손과 미소로 섬기시는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모습들, 과연 듣던 대로 찬양사관학교요, 서울음대라 할만했습니다.

특히 현장학습(예술의 전당)으로 마련된 세계적인 필리핀 마드리갈(MADZ)합창단의 공연은 인간의 호흡을 멋지게 한다는 극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약기인 목소리의 훈련과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영성이 담긴 찬양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카펠라 합창의 진수를 맛보게 하였고, 박정선 장로님의 작곡 작품도 두 곡이나 연주되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봉사의 임무를 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은 물론이려니와, 성경대학처럼 전교인이 한 번씩 등록하여 교회음악을 배울 수 있게 되어 회중들도 수준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시민양성에 찬양은 필수과목이 될 터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가장 귀한 선물이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기쁜 찬송을 불러야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크신 역사에 대한 찬송을 부르지 못한다면 그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 구속의 은혜와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며 법사에 감사하는 자의 영혼의 고백임을 깊이 새겨봅니다.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말씀과 기도,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찬양위원회의

위원장: 임상헌 장로 지도: 윤영국 목사
간사: 최형열 집사, 오승민 집사
♣ 가브리엘 찬양대 (전체 75명)
대장: 임상헌 부대장: 윤성남, 김명옥
오르간: 강민정 피아노: 양경실
고급관: 김동진 김민진 김희정 류승혜 박미영 박은영 박진경 배정선
송경옥 송미영 신혜진 유기순 이영자 이윤진 이정남 이주희 이형희
임명숙 임현영 장혜린 정영옥 최경희 표경희 하 수 한지희 홍혜련
황해자 (28명)
권수경 김명옥 김자영 김경란 김혜영 나금주 유은경 유인정 윤은숙
이소명 이영희 정은영 정혜순 최일준 최재준 (15명)
김광성 김경훈 김해연 박종만 박준영 백도환 서대식 안호상 육종태
윤성남 정국주 천정연 천경윤 한상준 (14명)
강수남 김재성 김현민 박노형 박명철 박성호 배대규 송중석 엄성우
유동인 유동훈 유영중 윤준호 이홍재 임상현 홍성민 (16명)
♣ 할렘루아 찬양대 (전체 86명)
대장: 김광식 부대장: 이체원, 김인숙 지휘: 이영조
오르간: 오자경 피아노: 안진희
강운숙 강현주 권희순 김남옥 김명숙 김성이 김순자 김옥선 김은숙
김인숙 나미용 이상민 박수옥 박종환 방승희 서경선 송미라 송혜숙
신금현 오규자 우고은 이기원 이난희 이영희 이현숙 임분도 전인숙
조정숙 최숙자 최인 최경희 최훈녀 허정자 황노진 (34명)
고광미 락 숙 김금복 김미경 김성은 김영식 김경희 김희진 박정섭
백정순 신기수 유외숙 이영주 이윤정 장낙희 전원순 주희원 진경옥
(18명)
김동훈 박길수 백병철 서형철 신홍철 유기찬 유승현 윤석배 이기일
이시환이제원 임민철 최형열 홍은표 황현진 (15명)
김광신 김병용 김성호 김영주 김익환 김중우 서경학 신규철 신봉철
안성현 오승민 유영호 이기범 이종형 전광영 한종우 (16명)
♣ 임마누엘 찬양대 (전체 106명)
대장: 신용식 부대장: 백수남, 박은혜 지휘: 고성진
오르간: 이성식 피아노: 백승희
강에스터 금미선 김경민 김선미 김성실 김영희 김은경 김정은 박정원
박정순 엄금순 오세정 오현경 오혜진 음영경 이보람 이부자 이유진
전배호 정윤용 정효자 최미지 최아영 하정 한옥순 황인숙 (26명)
강영자 김금숙 김소영 김선영 김신영 나기태 나소정 박영자 박은혜
박재원 송광진 안본선 양은정 양혜선 오 은 오지영 유수진 유수섭
이상숙 이지혜 이한나 이혜순 정봉금 조동희 조인숙 최소희 한주희
홍진선 허숙 (29명)
강창진 권재현 김관영 김대용 김대웅2 김동욱 김동환 김두현 김성준
김현호 박경원 백수남 송영준 송은석 송일석 신용식 신원열 유용진
이영수 이계광 정승용 최오섭 최 후 최정은 한대석 황남득 (26명)
강호준 김규원 김 건 김대용 김도연 김도훈 김승민 김승찬 박상훈
서춘식 손동혁 엄지원 예환식 오우록 오주명 옥종호 윤성열 임승한
장은규 전진 최문영 한선규 (22명)
♣ 베들레헴 찬양대 (전체 101명)
대장: 정병무 부대장: 김형택
오르간: 오민옥 피아노: 안진선
장승용 권문수 김광룡 김복순 김상열 김원용 김준근 김재근 김진달
박광식 박찬식 박희서 서경학 서명조 신도섭 안강수 안준홍 오유식
원윤범 유근중 이계홍 이광열 이상호 이선우 은기장 이승태 이재화
이종창 장양일 주영도 주동환 최형열 하인선 (33명)
김익현 김경호 손명근 신종진 오광환 윤운식 이학명 정찬주 최광성
최호영 (10명)
김관홍 김홍을 김형택 박길수 손병석 우지원 윤성남 이병현 이태원
정수환 정인주 홍창배 (12명)
권장환 권희우 김광룡 김금순 김영우 김영주 김영주2 김재성 김현관
김형배 박정순 박조현 송성희 양준경 오승민 오치열 오형철 유관모
유영호 유승순 유 신 유영준 유을상 윤태욱 이갑진 이기범 이남성
이동만 이영기 이종형 이태승 임광호 임낙식 정병무 조남일 조선진
전교남 최규조 최명수 최양진 최희열 최학인 한종우 (43명)
♣ 호산나 찬양대 (전체 59명)
대장: 이영희6 지휘: 서희숙 부대장: 심화숙 반주: 홍혜란
고급관 권희순 금미선 김선희 김순자 김명옥 김일순 김정은 김필임
박미영 박순복 박재숙 배옥선 소진자 손성실 유성임 윤종희 이갑연
이경희 이민숙 이부자 이윤희 이영희 이형희 임분도 전배호 전희진
조영자 현기옥 홍지나 황정임 (31명)
김고은 김유경 박복옥 박종순 박한옥 안경옥 이은희2 이은희3
전원순 지영순 한차남 (11명)
김희순 김희순 김미성 박우옥 심화숙 안본선 양미숙 유숙인 이신정
이현주유옥현 진영숙 최예순 천경화 허현숙 (15명)
♣ 시온 찬양대 (전체 50명)

대장: 이복규 지휘: 김미진 부대장: 오승민 허숙 반주: 양경실
박소은 김선덕 김점숙 김경란 소선자 송미라 송혜숙 이미송 이사라
임명숙 장운정 전숙향 정효자 조명준 최원자 (15명)
락 숙 광정임 권은주 김규순 김인영 김명옥 김희진 박은혜 박춘자
유수진 이영숙 장낙희 주희원 허숙 (14명)
김중은 노계권 서대식 이재화 정국주 최형열 한대석 (7명)
김대용 김영주 김경호 박정수 오승민 오형철 유승순 이복규 이영기
장두현 최광성 한종현 (12명)
♣ 은빛 찬양대 (전체 82명)
대장: 박두영 부대장: 원복순 지휘: 김미진 반주: 홍혜란
김복녀 김순인 김신애 김연옥 김연정 김용숙 김인식 노영숙 방계운
서창호신재은 여옥기 이민희 이상숙 임명자 조봉환 최영순 최정숙
허인숙 (19명)
고은화 고후덕 공진문 국선숙 김계순 김인순 나옥녀 박순복 송인숙
송옥혜원복순 윤영자 윤정숙 윤정식 이규희 이남복 이순래 이영자
이정숙 정중순 최금례 최무순 최정숙 최화옥 탄금희 한경석 홍광숙
홍복순 (28명)
김동호 김선미 김옥례 김용숙 김자경 김종자 김진숙 김진용 김혜정
백영희신유신자 승영강 심재애 유병옥 유복달 유후자 이윤영 최금자
한금희 한정원 (20명)
김희자 박두영 서귀용 손명근 안창희 이기훈 이덕빈 이용선 장영택
정병무정민도 조성열 최창화 (13명)
♣ 갈렙 찬양대 (전체 20명)
대장: 민순구 지휘: 최형열
부대장: 엄금순 반주: 백정순
락 숙 김한진 박경희 송혜숙 서경애 엄금순 오승태 이영희 전배호
정효자 허숙 (11명)
오승민 유을상 이영수 이태원 정병무 최홍열 (6명)
♣ 그레이스 웨드 벨 파이어 (전체 21명)
대장: 이동만 부대장: 이영옥 지휘: 송소영
고은지 김경숙 김연경 김재경 김혜린 박원서 박찬희 박창혜 백정원
서지영 신재호 유지영 윤승희 이도훈 이인영 강상국 조은아 최주미
(18명)
♣ 글로리아 (전체 9명)
대장: 서희숙
고급관 김명순 김명희 김미성 김태미 문형순 박종녀 이화진 (8명)
♣ 팔그림 찬양대 (전체 18명)
대장: 손병석
김창진 백경원 안재명 오동은 오유록 유은철 이경주 이근대 이부자
이필영 이윤혜 이한나 정승균 표경희 한정연 홍혜련 황지영 (17명)
♣ 아메리칸 찬양대 (전체 25명)
대장: 정인주 지휘: 손영호
경은숙 고유원 김성신 김지영 손영호 손혜인 손호세아 안지명 양순
정 여운지유승윤 이고은 이유리 이윤미 이이래 이희림 이현옥 정수
라 정영연 정태현정희화 최유나 한승이 (23명)
♣ 여의예배 찬양대 (전체 17명)
대장: 김훈 지휘: 김문영
김명희 김인숙 김 훈 김원용 심상희 심화숙 안선영 오영숙 이갑진
이완형 이주현 조선화 최호영 한은숙 Christine Dover Jordan Dover
♣ 새벽기도 피아니스트: 강요해 조현정
♣ 금요찬양 피아니스트: 홍혜란
♣ 찬양대양성반 피아니스트: 조현정
♣ 예비 지휘자: 박경자

◆ 예배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준장로 지도: 윤영국목사
서기: 홍창태, 김상태 회계: 이광열, 윤숙희
간사: 우지원, 김진환, 이자혁
♣ 주일 1부 안내 (23명)
부장: 홍창배 차장: 양재인 이은자
강한중 김경내 김광태 김상태 민병환 박조현 윤동수 윤태욱 이병현
한종표 (10명) 김광혜 김미경 김숙자 김은미 김희옥 박순복 송숙영
이미송 최경희 최중희 (10명)
♣ 주일 1부 헌금 (42명)
부장: 서춘식 차장: 조원장 오성애
고영신 박찬성 송재현 유종관 윤명구 이우현 임선철 진승근 최명남
하태현안선광 (11명) 권길자 김미향 김순구 김애실 김우숙 김인실
김지은 김진희 김화순 김희자문순순 박한옥 선순혜 손현순 송미자
송희숙 안선희 이갑연 이경연 이혜선임희분 장의남 정수진 진선자
한난숙 홍재석 고영숙 이복규 (28명)
♣ 주일 2부 안내 (20명)
부장: 강석우 김진환 차장: 김정임
고석태 김희석 박병수 박태섭 서창원 소은우 신동철 신항범 안현식

이진구유상재 (10명) 김미자 나연선 이기숙 이수련 장효정 황영희
(6명)
♣ 주일 2부 헌금 (36명)
부장: 우지원 차장: 조성영 김숙형
김영일 박용봉 이남성 천기성 한길동 (5명)
강애자 고원순 박선자 김명화 김양숙 김영경 김진숙 문분순 박계순
박정옥 박천희 박춘자 서영세 서경애 송정심 신경순 오은이 이재봉
임승자 임순자 임윤자 전행자 채태희 최태욱 최원자 황재연 박영옥
공진문 (27명)
♣ 주일 3부 안내 (8명)
부장: 이광열 차장: 남정열 이자혁
김용수 심근철 김승록 (3명) 박소은 경수은 (2명)
♣ 주일 3부 헌금 (22명)
부장: 권광철 차장: 이영조강희자
송성식 임낙식 (2명) 김경옥 김경은 김자순 김희진 남영주 남옥진
마은숙 박미혜 신영순 신현이 심상택 여영숙 이봉선 이승희 정희순
조상희 황보추자 (17명)
♣ 주일 찬양예배 안내 (7명)
부장: 김대용 차장: 김상태 윤숙희
남정열 (1명) 김숙자 노정숙 이자혁 (3명)
♣ 수요일 안내 (4명)
부장: 유기찬 차장: 윤숙희 박경희 임미경 (2명)
♣ 수요일 2부 안내 (4명)
부장: 이종형 차장: 장덕 이자혁 김남옥 (1명)
♣ 새벽기도 봉사위원회 (2명)
부장: 이부자 차장: 권행자 이순희
♣ 성례부 (22명)
부장: 황정일
권길자 김복순 김숙자 박연순 박영자 윤문자 이경희A 이부자 이성애
이인선 이혜순 최길옥 최무순 최소희 현준홍 홍재식 황재연 박경희
정유선 임승자 이경희B 정경희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오정수 서기: 임훈규 회계: 신용식
위원: 오형철 송인권 통일성
♣ 계수1부장: 홍일성
박희수 송인수 이우진 임선철 정경자 조원장 진승근 장두원 임옥근
윤종덕 유형석 백수남
♣ 계수2부장: 송인권
노인숙 박순복 박조현 배재술 손종근 윤태욱 최임수 이동권 홍창배
권장철 원용규 홍승진 김광룡
♣ 계수3부장: 오형철
권혁우 김복순 김정호 이상철 이태원 정경자 최양진 윤성남 양준경

◆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임훈규 서기: 조성식 회계: 이광규
위원: 류종관, 이계홍, 김찬용, 정동학, 유근중, 유을상
♣ 식당관리 1부장: 이계홍, 2부장: 류종관 3부장: 유을상
김석봉 김원중 김은순 김지은 배은희 송옥혜 신현이 양인수 오성애
원강희 이부자 이인근 이정현 이찬호 정동호 조미환 주영광 최무순
최봉애 최영숙 최태경 한광아 한옥순 홍승선 황인숙 고영국 김병용
탁경준 이남성
♣ 차량관리 1부장: 정동학
김성준 서경학 양지훈 오승민 유기찬 이광열 이동만 이종형 정상달
정인주 조원섭 최규조 최차순 최호철 한길동 김은태 손태기
♣ 차량관리 2부장: 유상태 김찬용
구정두 기복도 김관홍 서춘식 성기연 오교식 이경순 이선표 이학주
정승주 정진문 최명수 이숙우 김대용 손병석 김형택 이영조
♣ 차량관리 3부장: 유근중
박정수 오광환 오교식 오유식 이상호 최명수 김시환
♣ 차량관리 찬양예배 부장: 김금준
권장철 남정열 유상태 유근중 정동학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 저녁 9시5분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005년도 섬김위원들에게 사명감과 은혜를 베푸소서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